



(33) 정해숙 前 전교조위원장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지리산

# “복직조건 탈퇴각서 수용 괴로웠지만 후회안해”

정해숙 전 전교조위원장은 후배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수업 전 5분간 명상을 권한다.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약쓰는 대신 학생들에게 ‘자 5분만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자. 내가 누구인지, 잠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사가 지식과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요즘에는 수많은 서적과 매체, 인터넷 등으로 인해 학생들도 고급정보를 접하고 있는 만큼 지식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해도 누구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도 명상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없다는 것이다.

후배 교사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교육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신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미래 주인공을 지도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죠. 좋은 말이 없어서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니고, 교육이론이 없어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항상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외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가족에 또 친구들에게, 학교에, 국가에 어떤 사람인가’하는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후배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던 그는 어느새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1993년 10월15일 정부의 전교조 탈퇴 조건부 복직 방침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떠올리고 있었다.



1993년 4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오병문 교육부장관과의 첫 공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정해숙 전 위원장.

조합원을 살리는 것이 전교조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에 일단 복직 후, 재도약을 하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탈퇴서와 복직신청서를 각각 1부씩 교육청에 제출토록 했지만 해직교사들은 복직신청서만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 맨 아래에 ‘전교조를 탈퇴함’이라는 짧은 글만을 써 미래의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이 같이 전교조의 선봉에 섰던 그가 퇴직 후 생명평화운동에 전념하자 현실에서 말을 빼고 관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왔다.

## “퇴직후 故 정화스님과 인연

### 생명의 소중함·선의 세계 깨달아”

그는 5·18민중항쟁이후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 1983년 태안사에서 정화스님을 만나 생명의 소중함과 참선의 중요성, 참선을 통한 청정한 기운들이 혼탁한 사회를 맑게 만드는 저력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한다.

퇴직 후에는 성륜사에서 참선을 하며 신도회장까지 맡는다.

그러던 중 2001년 지리산에서 7개 종교단체가 모여 6·25 때 지리산에서 희생당한 빨치산과 토벌대의 경찰·군인, 억울한 주민들, 나무와 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린 행사가 계기가 돼 생명평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모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인사들이 모두 모여 생명평화결사위원회를 꾸렸고, 정 전 위원장은 지리산 생명평화학교 교장을 맡아 지금까지 평화를 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년 투쟁에 죽고 병드는 교사 속출

### “조합원 살리는게 우선” 용단

전교조의 복직 투쟁은 1993년 1월 31일 동국대에서 전국 1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해직교사 복직촉구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교조는 2월 1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2월내 복직문제 해결과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선별복직 반대·국회와 정당에 합법화를 위한 법률마련 등을 요구하며 10일간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3월28일에는 전국 1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제2차 해직교사 복직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이 같은 투쟁은 김영삼 정부를 협상태이불로 불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4월 8일 정해숙 위원장은 오병문 교육부장관과 첫 공식회담을 갖고 전교조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7월까지 4차례의 실무협상과 정해숙 위원장-오병문 장관 면담이 한차례 더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10월초까지 전교조의 전국적인 집회와 단식농성 등 투쟁은 계속되고, 정부와 전교조의 줄다리기도 극에 달한다.

이 때 정해숙 전 위원장은 중대 결심을 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무조건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를 위해 해

#### 약력

- ▲1936년 광주 출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6대 위원장
- ▲관현민주대상 수상(1999년)
- ▲성륜사 신도회장
- ▲생명평화학교장
- ▲전교조 지도자위원

직을 감수했는데 전교조를 탈퇴하고 그 대가로 복직하러나가 막힌 일이었죠.”

그는 10월15일 해직 교사들의 전교조 탈퇴 후 복직을 결정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투쟁하는 5년 동안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죽거나 병들어 갔습니다. 해직시에는 건강하기만 했던 젊은 교사 12명이 앞으로 죽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파괴한거죠. 늙은 나는 멀쩡한데, 매번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장례위원장을 맡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 금강·한라와 함께 한반도 三神山 두터운 흙의 기운...곳곳 유명 사찰

구례 성삼재에서 5시 출발, 오후 5시에 천왕봉(1915m)에 올랐다가 산청 증산리로 하산했다. 종주등반 코스 33.4km를 14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1967년 3개도(전남·전북·경남), 5개 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 15개 읍·면에 걸친 지리산(472km)이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리산은 887년 최치원이 생계사 진감선사비에 知異로 썼고, 삼국사기에는 地理로 기록돼 있다. 이후 대개 智異로 표기했고, 智利, 地利, 智理도 보인다. 본디 둘러쳐 있는 큰 산 뜻으로 ‘두루(頭流)〈지리〉가 됐고, ‘방장(方丈)·방호(方壺)’란 별명도 있다. 예로부터 금강·한라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민족의 영지(靈地)였다. 삼국시대부터 남녘을 대표하는 국가차원의 남악사(南岳祠)가 있었고, 천왕봉 성모사에는 성모(聖母)석상이 봉안되었다.

지리산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편마암산지로 부엽물질과 함께 토양층이 잘 발달된 이른바 흙산(土山)이다. 평활한 사면을 따라 울창한 수목은 보습효과를 갖고 있어



고산자 김정호의 필사본 동여도(東輿圖) 중 지리산일대.

‘녹색(생태)담’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물이 풍부한 어머니 같은 산이다.

백리지 산수권에 지리산은 흙의 성질이 두텁고 기름져서 온 산이 모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다. 산 안에는 백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많다. 바깥은 험소해도 안쪽은 넓어서 때때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도 있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곳도 있다. 온 산이 풍년이 든 해와 흉년이 든 해를 모를 정도니 부산(富山)이다.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은자(隱者)가 모여 들었다. 화엄사를 비롯하여 연곡사, 천은사, 실상사, 쌍계사, 칠불암, 대원사, 법계사, 내원사, 율곡사, 벽송사, 문수사, 안국사가 있다. 하동 청암 목계리에 있는 청학동은 도인촌(道人村)이 됐다. 구례 토지 오미리 금가락지터(金環落地·금환락지)에는 1776년 유이주가 건립한 운조루(雲鳥樓)가 있다. 1907년 항일투쟁을 했던 김동선이 숨어든 유재관의 집이다. 왕시루봉 자락에는 1925년부터 선교사 변요한(Preston)의 책임 하에 52동의 별장이 지어졌다.

운봉 화수리 피바위는 1380년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황산대첩비지다. 구례 송정리 석주관 칠의사묘는 정유재란 때 격전지다. 광의 월곡에 살던 황현은 연곡사에서 순절한 의병장 고광순을 기린 글을 매천집에 남겼다. 1948년 10월부터 1955년 10월까지 2만여 명이 피아골 등지에서 이념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1991년 뱀사골에서 고정희 시인이 급류에 희생됐다. 천연기념물 216호로 지정된 사향노루와 고상동시 돼지 우리도 사라졌다. 남원 주천 덕치리 박한기·고광진 역새집을 보고, 정령치를 넘으니 심원이다. 달궁을 거친 벽계수는 임천강으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흐른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원장)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한번 앞서주세요.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plus.co.kr

1588-8499 080-222-0100